

News

600조 주담대 68%가 변동금리인데…금리가 들썩인다

중앙일보

지난 2월 말 은행권의 주담대 잔액(593조6000억원)은 600조원에 육박. 이 중 은행권의 주담대 잔액(593조6000억원)은 600조원에 육박

176조원에 달하는 20·30세대의 주담대 잔액 중 70%가 변동금리 대출. 그런데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6개월 연속 오름세

암호화폐 급락시 인출 우려 대비하라…금감원, 케이뱅크 긴급점검

뉴스1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로 예금이 크게 늘었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돈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사전 대응 차원에서 점검

금소법 시행 한 달, 은행 소액 펀드 판매 절반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은행들의 공모 펀드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판매금액은 소폭 줄었다. 시중은행들은 소액 펀드 판매가 줄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

법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소극적인 영업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

시중은행장들, 인뱅 관련 논의

이데일리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에서 각 은행장들은 현안과 함께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참여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토의

금융지주는 이번 실적발표후 컨퍼런스콜에서 금융당국이 허용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삼성 일가가 금융위원회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

이 전 회장이 보유한 20.76%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족쇄 끊다…금융당국 적격성심사 재개

이데일리

빅테크의 대표주자 카카오페이지가 조만간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전쟁에 참전

발목을 잡았던 중국계 대주주 리스크가 사실상 해결되면서다. 증권시장에 상장을 추진 중인 카카오페이지로서는 커다란 족쇄를 끊는 셈

금융위, 삼성생명 제재 넉 달째 검토만…특별한 이유라도?

비즈니스워치

금융위원회가 넉 달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이 일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손보, 신상품 개발 속도…캐롯과 트트랙 시너지 시동

데일리안

지난해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면서 투자여력을 회복해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

한화손해보험이 신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 흑자전환으로 매각할 이유가 사라진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의 비대면 채널과의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